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 교육관에서 8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집회 시간에 2012년 전교인 여름 수양회 보고회를 합니다.

가을학기 성서학당이 9월 5일(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전력량 10% 줄이기 - 7, 8월 교회 전력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줄이려 합니다. 실내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안 쓰는 공간의 전등 및 냉방기기의 전원을 꼭 꺼 주세요.

식 당 봉 사 : 박미영 문현미 이은주 윤정화 이재문 곽상준  
 9/2 식 당 봉 사 : 최현옥 김순자 이수정 권현숙 이소순 김정민 이해령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박상규 하진술 신인경  
 다음 주 설거지 : 최양순 노준우 송 샘 이원호  
 새 교 우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기운을 힘입어 삶의 생기를 되찾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손을 모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 극단적인 폭력을 행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받게 될 아픔에 대해 깊이 느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숙이 권혁순 박혜경 김경혜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혜권 박재임 노준우 박영희 박인혁 배부례 변재민 이소혜  
 서수진 송남필 양재성 오자영 유상진 유은정 윤정덕 구성실 이광섭  
 이근식 신영신 이봉옥 이은자 이종배 이준림 이증자 김창경 정복순  
 정완수 김재광 조병억 조정연 주경진 이윤정 최미자 한기택 허준호  
 무명

### 감사헌금:

김대규 박경애 김명순 박창운 허정운 이경민 임미심 차혜심 한미화  
 김하림 김하원 무명4

### 녹색꿈헌금:

김경혜 박민결 양재성

### 생일감사헌금:

오현정 이채령

장혜숙	백혜숙	심	심
노순옥	박성희		
최희영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박혜경	조향미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 혼자 가질 수 없는 것들

문정희

가장 아름다운 것은  
손으로 잡을 수 없게 만드셨다

사방에 피어나는  
저 나무들과 꽃들 사이  
푸르게 솟아나는 웃음 같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은  
혼자 가질 수 없게 만드셨다

새로 건 달력 속에 숨 쉬는 처녀들  
당신의 호명을 기다리는 좋은 언어들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저절로 솟게 만드셨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 속으로  
그윽히 떠오르는 별 같은 것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던 그릇된 모습들을 버리십시오. 예수를 목표 삼아 날마다 참 생명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아멘. 잘못됐지만 오래됐기에 나의 그릇된 모습을 묵인하며 살아왔음을 반성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과감히 버리며 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수양회 보고회	갈라디아서 / 이범석 목사 기도 : 신진식 선생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박아름 선생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혜숙 권사	이나단 선생 이영란 집사

<b>8월</b>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박석희 유경순 조항미 이현순
	헌금위원	한상의 김금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단순하게 살기

### 37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아무것도 소유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무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골짜기를 바라보며, 골짜기의 법적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 아름다움을 즐기지요. 잘 지은 건물을 볼 때도 그냥 그 구조물의 예술성에 놀랄 뿐입니다. 누군가가 빌려준 연장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며, 다루기 좋게 만들어진 연장에 감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소유한 것은 많은데 자기가 소유한 것에만 관심하는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되기 전에는, 하느님이 지으신 세계의 어느 한 부분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줄을 모르지요. 자기 건물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아름다운 구조물의 예술성도 그를 즐겁게 해주지 못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건물의 예술성은 그의 가슴에 시기와 질투심만 안겨주는, 어디까지나 남들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이 된 것들조차도 계속해서 그를 즐겁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를 차지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골몰하게 되니까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진짜 부자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 40

여러분의 도시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질이 없어 보이는데 어찌다가 세도가 집안에 태어났거나 상급자가 베푼 은전으로 권세를 부리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타고난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있어서 복잡한 문

제를 쉽게 풀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타고난 재능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재능을 초월하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그것이지요. 이 도덕적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니는데 어떤 사람은 지니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 분별 능력은 모든 사람 마음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성찰, 교육, 기도, 연습을 통해서만 자라나지요.

우리네 지도자들이 타고난 재능이 많기보다는 도덕적 능력이 풍부하여, 자기 권위와 지혜를 뽐내지 않고 그것들을 본디 목적에 맞도록 활용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요.

### 44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할까요? 교황은, 황제처럼, 모든 신자가 복종해야 할 법령을 제정해야 할까요? 주교는, 왕이나 군주처럼, 이의 없이 복종할 것을 백성에게 요구해야 할까요? 사제는, 군대 지휘관처럼, 교황과 주교의 명을 받들고 죄인에게 법을 내려야 할까요?

교회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죄를 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막을 것이냐입니다. 일단 누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고 뉘우쳐서 결국 형벌이 필요 없게끔 하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요. 이것은 세속 국가에서 범죄자를 다루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방식입니다. 그만큼 교회에는 다른 통치방식이 요구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신자들이 마주하여 대답해야 할 분은 사제도, 주교도, 교황도 아닌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런즉, 교회의 수장이 해야 할 임무는 법령을 제정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혼을 고무하고 양심을 살아 있게 하여 그들 스스로 하느님의 법을 따르도록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자신을 지배자로 여기지 말고 설교자로, 사목자로, 여길 일입니다.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단순하게 살기」 중에서